

야외박물관 전시 유물 도난 위험

별도의 보안 장치나 관리시설 대신 입장과 촬영 금하는 표지판만

현재 130여점의 유물 전시... 향후 170여점 유물 추가 배치할 듯

야외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도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 본관 건물 남쪽 잔디밭에 위치한 야외박물관에는 현재 동자석, 정주목 등 130여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하지만 야외박물관에 별도의 보안 장치나 관리시설이 없다. 다만 학생들의 무단 입장과 촬영을 금하는 안내 표지판만이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유물이 도난당할 경우에

이를 인식하기 힘들고 도난 예방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야외 전시장과 전시공원 등 박물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하는 시설은 박물관법에 저촉을 받는다. 제주대 야외박물관 또한 유물 관리와 보존을 박물관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야외 박물관의 전시 유물들은 최소한의 도난방지 시

스템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인정하는 1급 박물관의 기준에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내부 전시장에는 CCTV등의 보안 장치가, 외부에 위치한 야외 전시장에는 외부인 무단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내 박물관 관계자는 “외부에 위치한 야외 전시장의 경우에도 보안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며 “제주대 야외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 또한 가치가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야외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은 최근 석상과 연자방아를 포함한 170여점의 유물을 제주대 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박물관 측은 이 유물들 또한 야외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야외박물관의 유물 관리·보존 업무는 박물관 학예실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야외박물관의 유물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안 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종찬 학예사는 “현재까지는 각 유물이 전시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야외박물관에 위치한 유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총무과와 협의의 통해 보안 업체의 시스템을 점차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수빈 기자

제주대-미얀마·말레이시아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주대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의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허향진 총장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얀마 양곤대 (총장 아웅 투)·양곤외국어대 (총장 르윈 르윈 서), 말레이시아 UCSI 대 (총장 칼리드 유소프)·마라기술대 (총장 탄스리다토스리 사를 하미드 아부 바카) 등을 방문해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번 학술교류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우수 유학생을 확보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는 강영훈 국제교류본부장과 최국명 교무부처장도 참석했다. 김보라 기자

‘세계를 품고 제주로 오다’

KOVA 3차 지역세미나 열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가 11월 11일 교양강의동에서 ‘세계를 품고 제주로 오다(OD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과제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복지·전기·간호·컴퓨터·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해외봉사단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에선 해외봉사 경험을 통한 취업·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다. 예과도로르 파견을 간 박지옥(고려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씨는 “병원 내 네트워킹 구축, 의무기록 전산화 등으로 대기 시간과 진료시간을 단축했다”며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예과도로르 보건부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해외봉사 모범사례로 선정도 됐다”고 소개했다.

사례 발표 후 질의응답과 KOICA 봉사단원 선발 절차 등 해외봉사의 의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유주연 기자

재학생 장학금 수혜율 85% 실현

1인당 평균 장학금 약 223만원

올해 지급액 224억여원 달해

제주대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85%에 이르고 있다. 또 장학금은 등록금의 절반을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전체 재학생 중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의 비율은 85%에 이른다. 지급된 장학금 비율은 국가 장학금이 65%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장학금 11%, 성적 우수 장학금이 9%를 차지했다.

2013년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약 223만원으로 1인당 평균 등록금(약 378만원)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지급된 장학금 비율(48%)보다 11%가 높다. 2012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약 379만원이며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약 184만원이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 수와 장학금 지급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내 외부기관단체나 기업들이 발전기금을 기부해 교외장학금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제주대의 등록금이 인하됐음에도 장학금 확보가 잘

돼 있어 9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했다. 교내장학금은 대학본부가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약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높은 장학금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1인당 평균 장학금은 목표금액인 200만원을 넘어 현재 약 209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복지과(과장 이상원)는 올해 1인당 장학금 목표금액을 약 224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59%로 전망하고 있다.

올 4/4분기 장학금 추가 집행예정금액은 교내근로장학금 2억2000만원, 국가장학금 9000만원, 교내장학금 3000만원으로 총 3억4000만원이다. 현재 집행된 장학금은 약 220억6000만원으로 집행예정금액을 더한다면 올해 예상 장학금 지급금액은 약 224억6800만원에 이른다.

이현주 학생복지과 실무관은 “성적과 학점 기준에 미달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500명에 이른다”며 “아르바이트보다 학업에 좀 더 집중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면 학비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이라고 했다. 백승규 기자

우수 신입생 유치 위한 입시설명회 열려

18일부터 17개 고교 4450명 대상

특성화 학과 소개·통합상담센터 등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도 참가

제주대가 2015학년도 정시모집을 앞두고 우수 신입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입학관리과(과장 진순화)는 11월 18일 제주제일고와 제주여고를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도내 17개 고교 3학년 학생 4450명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설명회는 아라뮤즈홀에서 13개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에 위치한 삼성여고, 서귀포여고, 남주고, 서귀포고 등 4개 고교는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입시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모집요강과 홍보자료 배

부,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설명, 특성화 학과 소개, 단과대학별 통합상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서 열리는 ‘201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도 참가한다. 이 행사에서 홍보부스 2곳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수험생·학부모·진학지도교사 등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한편 제주대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전지민 기자



11월 18일 아라뮤즈홀에서 제주제일고와 제주여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정시 대학입시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II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11월 18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관리 나서

제주II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운경 식품영양학과 교수) 개소식 및 운영 위원회가 11월 18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허향진 총장, 김재호 제주대 어린이집 연합회장, 오종수 제주도청 보건 위생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설됐다.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제주·서귀포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II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에서 산



학협력으로 위탁 운영되는 센터이다.

주요 사업으로 센터 직원들이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지도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어린이 영양 교육, 원장교육, 조리사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운경(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급식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5학년도 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 원 자 격	• 전공제한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원 서 접 수	• 2014. 11. 18(화) 10:00 ~ 11. 21(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필 기 고 사	• 2014. 12. 12(금) 10:00 ~

면 접 고 사	• 2014. 12. 12(금) 15: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내규에 따라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선급,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선급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풍력공학부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 발 방 법	• 본 과정은 필기고사(전공영어, 각 전공별 전공과목)와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풍력공학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http://gwe.jejunu.ac.kr)

사 설

생협의 역할과 기능

지난 11월12일자(926호) 제주대신문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생활협동조합을 유치하려던 교육대학의 절실한 노력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직영이 어렵다는 생활협동조합의 회의 결과로 돌아왔다. 기사에 따르면 생활협동조합은 현재 아라캠퍼스 백두관 식당운영에서 이미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을 운영할 시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적자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대학당국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대학 학생회의 노력은 지난 2012년 7월 4일자 제주대신문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교육대학 소속 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식당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에 불과하며, ‘학생식당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은 식단의 다양성 부족 및 가격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무려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대학 학생회가 2014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실망스러웠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에 불과하며, 반대로 불만족에 대한 목소리는 66.8%에 달하고 있어 2년 전의 설문에 비해 전혀 나아진 점이 없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대학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학생이 학생식당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라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에 대한 교육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라캠퍼스의 주변 환경과 학생 복지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책마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에서 이뤄지는 갖가지 생활, 즉 소비와 문화생활 등을 보다 나은 생활로 바꾸기 위해 대학인 스스로가 결성한 협동조합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경제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문화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대학인의 요구에서 출발한 자조운동이다. 만약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이 고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단체라면 굳이 이와 같은 조직이 아니어도 더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조직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에서 대학생활을 설립하고 운영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문제의 해답은 당연히 협동조합이 지닌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인적결사체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 즉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출원한 출자자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생협이 나날 포함한 조합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작게는 물건가격 하나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조합원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 모든 사업을 통한 경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되기도 하며, 그렇게 결정된 사업을 내 가 이용하는, 바로 내가 주인인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이용자도 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대학의 후생복지사업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대학 외부의 전문 경영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또는 대학에만 맡기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인이 되고자 한 것이 대학생협을 설립한 진정한 목적이자 의의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대학 생활이 아직 탄탄한 자립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생활과 대학당국의 재정압박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의 아라캠퍼스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대학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 또한 학생복지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2007년 11월, 10여 년간 안전으로 오르내리던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이 체결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양 대학은 완전한 통합과 함께 제3 창학원년을 선포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꾸준히 제기된 교육대학 학생식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큰 지향점을 지닌 대학생협과 학교당국의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품격’ 총대의원회· ‘함박웃음’ 동아리연합회 당선

‘품격’ 총대의원회 총 180표 중 찬성 155표(83.8%)

‘함박웃음’ 동아리연합회 149표 중 찬성 127표(74.7%)

11월 11일에 진행된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품격’ 선거 운동본부(정·정재명, 부·강창규)가 당선됐다. 각 학과 1~3학년 대표로 이뤄진 유권자 200명 중 180명(90%)이 투표에 참여했다. ‘품격’ 선거운동본부는 무효표 없이 155표(83.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품격’ 선거운동본부 정재명(건축공학과 4) 총대의원장 당선인은 “일반아라 학우들의 품격을 위해 모든 학과대표들과 함께 청렴한 학생 자치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생자치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제와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 치러진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단독 출마한 ‘함박웃음’ 선거운동본부(정·문경록, 부·김태양)가 당선됐다. 각 동아리마다 5개의 투표권이 주어져 총 유권자 170표 중 149명(87.64%)이 투표에 참여했다. ‘함박웃음’ 선거운동본부는 무효표 없이 127표(74.70%)의 지지를 받았다.

‘함박웃음’ 선거운동본부 문경록(수학과 3) 동아리연합회장 당선인은 “일반 학우와 동아리를 선을 긋



11월 13일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2015학년도 동아리연합회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동풍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동아리들과 협력해 함

박웃음 짓는 그날까지 최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제주언론학회 창립총회 19일 개최

언론 연구·교육 활성화 기대

지역언론 연구 세미나서

제주언론학회가 11월 19일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 2층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제주언론학회는 제주지역의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육을 토대로 올바른 지역공동체의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설립된다. 발기인 대표로는 최낙진(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나선다. 또 이에 앞서 언론홍보학과(학과장 최낙진 교수) 주최로 지역

언론 연구 2014세미나가 열린다.

행사는 △개회사 및 축사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제주 지역언론학회 창립식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전체 행사의 진행은 김경호(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맡는다.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김동주(전 KBS 제주방송총국장)씨가 좌장을 맡고 김경호 교수와 조은주(언론홍보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위기관리 상황에서의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정부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20일 한경면 저정초서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회장 유재건)과 협력해 11월 20일 한경면 저정초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행사를 연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수업이다. 평소 외국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한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이 통역자가 팀을 이뤄 △문화 설명 △음식 만들기 △노래·춤 배우기 △각 나라 의상 입어보기 등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강서윤 기자

무한상상실 우수기관 선정

제주대 무한상상실(책임 현정석 경영정보학과 교수)이 11월 8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무한상상 페스티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대 무한상상실은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초·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행사는 전시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의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국민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보라 기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반사경 추가 설치

생명대·공과대 4호관·사회과학대 등 설치

교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반사경 3대가 11월 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반사경 설치예정위치는 주차 경비원들이 자주 언급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반사경은 생명자원과학대학 풋발 앞에 설치된다. 이곳은 평소 진입로 양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이 잦았다. 또 공과대학 4호관 동쪽 경사가 급한 구간에도 반사경이 설치된다. 공과대학 4호관에서 교양 강의동으로 향하는 길은 내려오는 차량이 올라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사회과학대학 서쪽 자문동 옆 사거리는 양방향 반사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과학대학과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정문에서 올라

오는 차량, 경성대학에서 내려오는 차량 등이 섞여 혼잡하기 때문이다.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경 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 기자

제1회 문화콘텐츠 창의아카데미 열려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은 11월 13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문화콘텐츠 창의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선 ‘4·3 소재 영화 <지술>의 기획과 제작’을 주제로 <지

술>의 고혁진(제주독립영화협회 대표) 프로듀서가 강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제주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한 스토리텔링과 영상화 되는 과정을 <지술>의 제작프로듀서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갖었다. 강수빈 기자

WEST 취업연수 설명회 열려

한미(Work English Study Travel, 이하 WEST) 취업연수 프로그램 설명회가 11월 19일 오후 2시 경성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WEST 선배들의 강연과 멘토링,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WEST 취업연수’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해외인턴십 홈페이지(www.ggi.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취업전략본부(☎754-2303) 전지민 기자

산업디자인학부 전시회

11월 18일부터 4일간 열려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학과장 김기필 교수)은 11월 18일부터 4일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제26회 과제전시회’를 개최한다.

과제전시회는 시각·광고·포장·에디토리얼디자인, 제품·공공환경·컴퓨터그래픽·3D 컴퓨터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교과 결과가 전시된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녹색관광융합 시각디자인전공, 녹색관광융합공공디자인전공의 연계전공의 결과물도 함께 전시된다. 김해진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라아카데미 강연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11월 10일 교육대학 원격화상 강의실에서 ‘배려와 협력의 관점으로 제주 교육과 우리 아이들 바라보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제주 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 서열화를 지적하며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평가란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평가의 의의와 목적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경쟁구도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찬우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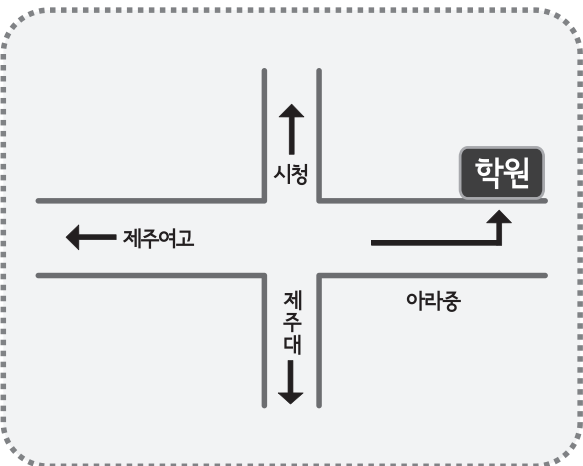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 ↔ 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9일(금) 16: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사람들

제13회 한라서예전람회 대상

손요규 교수



손요규(국어교육과) 교수가 (사)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양상철)가 주최한 ‘제13회 한라서예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손 교수의 작품 「적벽부」는 예서와 행초서를 혼합해 작품구성과 장법 및 필획 등이 여타 공모전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형식으로 평가받아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손 교수는 「산수문학연구」, 「산수미학탐구」 등 8권의 저서와 여러 편의 공저,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산수문학과 산수미학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개척했다.

또 퇴계학(退溪學)을 바탕으로 고전시가문학이론을 탐구해 퇴계시(退溪詩) 연구에도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퇴계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라서예전람회에는 총 261점이 출품했고 입선 이상 수상작은 170점이 선정됐다. 입상작 시상식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제주도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또 입상작품 전시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김하윤 기자

WISET 올해의 멘토상 수상

지영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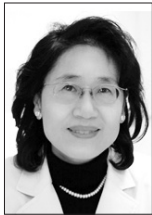
지영흔(수리학과) 교수가 11월 12일 한국과학기술술회관에서 열린 ‘2014 WISET 멘토링의 날’에서 올해의 멘토상 수상자로 뽑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 교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멘토 역량, 멘토링 노하우 축적 정도 및 성과 등 다면적인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여성과학기술자를 꿈꾸는 중·고·대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올해의 멘토상은 멘토링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멘토링 참여자의 자기진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한편 지 교수는 2011년에는 WISET 제주지역센터장을 했으며, 2012년에는 WISET 제주지역사업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강서윤 기자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로상

박영숙 교수



박영숙(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1월 7일 서울 리즈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3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평소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아동정신치료 및 교육 수련에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또 2012년부터 2년간 학회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와 학회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해 국민 의식 및 제도 변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교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와 연구에 대해 공로상을 받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하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교수시론



현 해 남
식물자원환경전공 교수

“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수업에 맞는 표현을 통해
학생들의 머리를
즐겁게 해야 강의실에
활기가 넘친다

”

손자는 전투에서 이기려면 팽과리와 복과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스티브 잡스식(式) 프레젠테이션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다. 모두 눈과 귀를 집중시켜야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자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고 잡스는 장사 수단으로 이용했다. 대학교 전투나 장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속된 표현이지만 등록금을 받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잡스와 같고 졸업한 후에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이라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손자와 같기 때문이다.

손자는 병사들의 귀를 집중시키기 위해 팽과리와 복을 사용했다. 눈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깃발을 사용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첫째이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손자병법을 본받아 진격을 할 때는 징과 팽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인해전술을 폈다고 한다.

잡스의 제품 소개는 다음 화면을 기다리게 한다. 한번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한다. 한번만 듣거나 보면 설득 당하게 한다.

2001년 iPod 신제품을 발표할 때 잡스는 리바이스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 위에 있는 동전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 150여 년 전인 서부개척 시대 때 이미 iPod을 위한 주머니가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 이후부터는 동전주머니가 아니고 iPod 주머니라고 부른

손자와 잡스에게 배우는 대학 강의

다. MacBook Air 노트북을 개발했을 때도 노란 서류봉투에서 꺼내면서 소개했다. 서류봉투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가볍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화제를 제시하고 숫자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시각적인 슬라이드를 보이고 제품의 이점을 확실하게 홍보하고 발표자의 열정으로 청중이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아이디어가 좋고 내용이 뛰어나도 청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없다. 듣는 사람은 야구처럼 준비동작을 하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느리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는 사람은 탁구처럼 정신없이 쏘아 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은 내용도 감정, 원근, 강조, 동격, 간격 표현의 원리를 알아야 잘 전달된다. 감정표현은 가슴에게는 필수다. 그래야 듣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린다. 강조와 원근표현은 표를 얻기 위해 악을 쓰며 유세하는 정치인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듣는 유권자의 가슴을 뛰게 한다. 히틀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도 그 이유다. 시를 읽는 사람이라면 동격 표현의 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다.

자연과학 교수라면 강조와 간격표현이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의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 교수는 강조와 간격 표현보다 또 다른 표현방법이 좋을 것이다. 표현에는 다섯 가

지가 있지만 학문종류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교수가 있다고 얘기한다. ‘진똥개 교수’를 싫어한다. 교재와 백묵 하나로 묵묵히 수업진도만 나가기 때문이다. ‘뽕페교수’도 싫어한다. 똑 같은 그릇에 재료와 모양이 다른 음식이 잔뜩 진열해 있는 뷔페를 먹는 것처럼 먹고 나면 쉽게 질리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듣고 외우고 시험보고 잊어버리는 강의를 좋아할 리는 없다. 교수들도 학생일 때 제일 싫어하는 강의였기 때문이다.

잡스는 웅변가가 아니다. 장사꾼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마치 학자처럼 차분하고 명확하게 신제품의 장점과 의미를 전달한다. 목소리도 크지 않다. 감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얌전한 제스처와 시각적 효과와 명확한 간격표현과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의 묘미 때문에 한 번의 신제품 소개가 동영상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2500년 전에 손자는 병사의 귀와 눈을 열어두게 하고 깃발을 보게 해야 모든 병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 강의도 마찬가지이다. 눈과 귀를 열게 하고 머리를 즐겁게 하는 강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이 가득 찬 강의실에 활기가 넘친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행복한 일인가.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것이 고맙고 겸손해지게 된다. 그럴 때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다양한 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일지라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역지사지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감사, 격려, 칭찬을 서로에게 아끼지 않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운유하고 따스한 마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를 불신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 독선적이거나 아집에 기운 이기주의가 없어질 것이다.

누구나 살다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견갑을 수 없는 슬픔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생겨 끝내는 극복할 것이다. 해가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인심 속에서 영원한 의미가 남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런 사랑을 퍼올 토양이 바로 따뜻한 마음이다. 물건을 잃었을 때에는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마음을 잃거나 상처받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기가 어렵다.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있을 때, 둘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울릴 때 더 더욱 그 마음들을 지키기가 어렵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잊고 산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의 마음가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해 새아침을 맞을 때마다 가져보던 다짐도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생은 100미터 경주가 아니기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식물도감을 열심히 본다고 꽃을 다 알 수는 없다. 실제로 산이나 들에 가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야 비로소 알고 기억으로 남는다. 학생 시절엔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직장인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 직장인이 되면 쉽게 하지 못할 일들을 대학 시절에 한 가지라도 더 한다면 중요한 판단의 갈림길에 설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힘들 때마다 나를 지탱한 것은 대학 4년의 시간이 키워준 세상에 대한 동정과, 진실과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이제 또 한해를 보내면서 각자가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에 대해 진정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뜨거운 열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면 참된 일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간선택제 교사 논란, 이대로 흐르나

만드는 것이 아닌 정규 교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더 옳은 것이다. 이 제도의 효율성도 의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경력 단절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년제나 학기제로 휴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앞서 말한 문제로 퇴직을 하는 교사들은 소수이다. 교직은 수업 외에도 일상적인 학생생활지도, 상담 등 다른 업무도 중요하다. 주 2, 3일 근무하는 교사에게 전일제 교사와 같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무 제도 도입이 기존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교직은 교과별·학년별 협업이 중요하다. 교사가 맡은 반의 수업 외에도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지도, 학년별 행정업무 처리 등 교사 간 다양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면 이러한 교사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의 행정 업무의 증가와 근무 의욕 저하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절차상의 민주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현직교사를 시작으로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에는 후회만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어떠한 종합적 검토도 없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원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계약직 교사 등 ‘교사의 질 담보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정답없는 논란 ‘노키즈존’

‘노키즈존’은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해 내놓는 뜻 말이다. 식당과 카페마다 기준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런 현상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를 주는 아이들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를 수는 있다. 그렇기에 부모가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그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수가 많아졌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만져 일어난 사고도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가게의 책임으로 잘못을 떠넘기기도 한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가 잦다. 몰상식한 부모들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도 없기에 일부 가게는 아이들을 받지 않으며 피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박 서 연
영어영문학과 1

동문칼럼



김 현 철
농화학과 84학번
제주도 정책특별보좌관

돌하르방



부 찬 우
기자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다. 이른 새벽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2014년 한 해도 어느새 다 지나갔다 하는 생각을 했다. 올 한해도 참 많은 이틀로부터 도움을 받은 복 받은 한 해였다. 40여일 남짓 남은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면서서도,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연말이 다가옴을 실감하면서 자신이 도움을 받은 만큼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애썼는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가 내년 달력이라며 보여주는데, 잠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제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한해가 무심하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새삼 대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을비처럼 촉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해의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들려오는 사랑의 종소리와 함께 축복받는 2015년이 다가옴을 느낄 때 어쩌나 가슴이 훈훈해지고 행복이 차오르는지,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할 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육부의 이번 안은 지난 4월 11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후, 신규채용 제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결정과는 반대된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입장변복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도 자체만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편한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 제도 도입의 취지부터 교육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의 측면에서 도입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반쪽 교사’를 양성한다는 비판이다.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도 있다. 시간제 교사가 전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되는 제도라면 굳이 시간선택제 교사로 일자리를

에서, 내가 임하는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라며 허탈해하고 불평만 늘어 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만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시작했다. 내게 주어진 일, 해야 할 일들부터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매일이 보람차고 행복해졌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성취감, 즐거움과 같은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행복임을 느꼈다.

나를 포함해 내 또래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대부분 오직 대입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뛸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도 그랬듯이 많은 또래들이 정작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정말로 내가 꿈꾸고 바라던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1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두렵더라도 긍정적으로 부딪쳐야 한다. 나는 앞으로 뛰가 될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요즘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신이 꿈꾸는 대학생활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교수들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나설 것”

인터뷰 김철수(전산통계학과) 신임 교수회장

▶취임 소감은.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돼 어깨가 무겁다. 교수들이 바라는 것처럼 교수회 다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국립대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교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학의 교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 교수들과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불편한 제도와 성과급 연봉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무와 학사분야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를 찾아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퇴직 대비 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에 교수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 하는 등 어려움에 놓인다. 교수회 차원에서 교수들의 퇴직 후 기분을 갖추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급 연봉제의 개선을 발표했는데.

“성과급 연봉제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제도이다. 성과 연봉제란 각 교수들을 평가해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 연봉의 일부가 다음해 기본 연봉에 포함되는 누적 방식을 뜻한다. 평가 첫 해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재직 내내 첫 해의 성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교수와 연봉 차이도 크다. 무엇보다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라는 것이 문제다. 이는 학술적인 교류는커녕 학부 교육을 죽이게 한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의 연구와 업적, 논문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일이 지속된다. 따라서 이 현안은 제주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국립대학교 교수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또한 성과급 연봉제의 평가 기준이 학문과 전공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논문실적이 우선되어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 학내외견을 수렴해 평가단위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책임지도교수제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책임지도교수제는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많은 교수들이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해 성실하게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 앞서 성과급연봉제의 폐해를 언급했듯, 교수들이 연구이외의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많은 교수들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학생들과 자리를 갖는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교육·상담 활동 등이 교수업적 평가에서 높은 반영비율을 기록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교수들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차후 교수들의 복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성회계제도는 그간 국·공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사립대학교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는 국·공립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원 등의 보조로 쓰이기도 해 교수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이다. 빠르다면 내년부터 대학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성회계제도의 폐지 후 교수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재 총장선출제도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직선제가 바람직한 선출 방법이나 제도적으로는 간선제를 하도록 했다. 지난 총장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 교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교수들의 복지와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교수들은 불합리한 성과연봉제, 취업지도, 대학의 각종 사업 진행 준비 등으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회가 발 벗고 나서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수빈 기자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000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독자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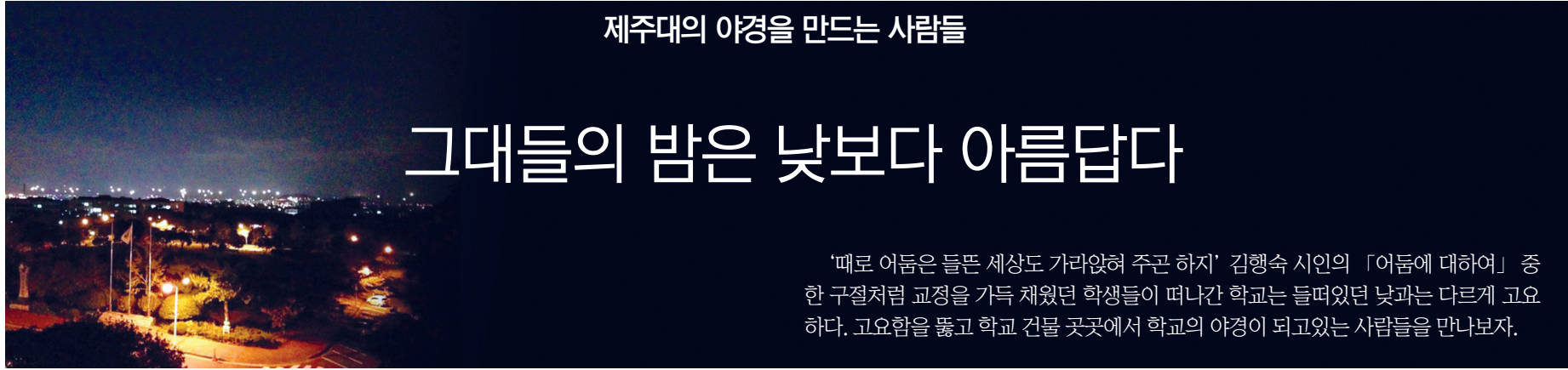
원하던 대학생활을 위해

김소미
무역학과 1



마치 그 동안 나를 둘러싼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멋진 일들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깊은 우정을 보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심이었던 인간관계는 대학에 입학한 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사귀면서 얇고 넓어졌고, 거의 매일 사람에 치이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난 생 처음 하게 된 아르바이트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건지만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내가 바라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입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공부해야 했던 고등학생 때보다 더 무미건조한 일상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왜일까를 고민해보니 그 동안 나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에 앞서 내 안



▶학생회관의 밤을 빛내는 사람들
늦시간 학생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학생회관은 밤에도 학생들의 열정으로 여전하다.
저녁이 되면 학생회관은 동아리의 장으로 변신한다. 그 중에서도 학생회관 4층의 중앙 복도에서 열심히 기타연습을 하고 있는 동아리 ‘로망스’를 만났다. 로망스 기타회는 어쿠스틱기타로 연주하는 여러 음악들을 폭넓게 즐기는 데 목적을 둔 동아리이다.
“평일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연습하고 있어요.”
고병수(기계공학과 1)씨는 기타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12월에 있을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모든 동아리 회원들이 연습에 한창이다. 부족한 점은 서로 묻고 잘하는 점은 칭찬하며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을 키워나간다.

“밤에 학교를 내려가는 길은 좁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요. 선후배가 같이 걷는 교정은 어느 때 보다 훈훈하거든요.” 학교를 내려가는 동안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다.
동아리 로망스는 연습이 일상이다. 항상 합주 연습과 개인 파트 연습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연습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제2의 집이 된다. 학생임과 동시에 음악을 하는 음악인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은 그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혼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후배와 동기들끼리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매력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그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치고 힘든 것은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귀가 길이 아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고 빈틈을 채워나간다.
모든 일의 과정이 협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주대의 음악을 빛내는 밤의 기타리스트이다.

▶중앙도서관을 빛내는 사람들
학교에서 가장 오랜시간 빛나는 곳이 있다. 바로 중앙도서관이다. 365일 어느 때나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빛이 있다.

“매일 밤 12시 중앙도서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요. 졸업을 위해서 토의공부를 하고 교정을 읽고 바로 잡힌 역사외식을 위해 한국사를 공부해요”

이미숙(정치외교학과 3)씨는 매일 꿈을 위해서 중앙도서관의 불을 밝힌다. 공부까지 지식을 쌓는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양식이 됨을 알고 있는 그녀는 작은 체구이지만 열정으로 꼭 차 있다.

“도서관의 사람들은 낮과 밤에 확연히 차이가 나요. 낮에는 일상적인 일을 위해 사람들이 있다면, 밤에는 시험준비를 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열기로 가득 차거든요.” 그녀의 표정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지치기 보다는 웃음이 번진다.



도서관(사진 왼쪽)은 낮이나 밤이나 학생들의 학구열로 가득차 있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이 피곤하기 보다는 뿌듯하고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내 선택이 옳은 길인지 짚어보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은 분명 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량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공부를 하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길을 걷는 이들은 매일 매일이 새롭고 소중하다. 순간의 답답함은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저에게 밤은 꿈을 미리 실현해보는 도화지 같은 시간 같아요. 모두가 바쁜 요즘, 혼자서 고독을 곁잡는 시간은 유일하게 저만 쓰는 도화지같은 시간이기도요.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면서 저의 도화지는 점점 제가 그리는 물감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자신만의 도화지에 시간이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녀는 도서관을 밝히는 가로등이다.

▶제주대 곳곳을 빛내는 사람들
주간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느라 강의실은 북적인다. 친구들과 함께 듣는 수업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다. 열심히 수업을 듣는 시선, 헤가지는

빛은 어느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시간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야간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여가가 되는 시간을 쪼개어 수업을 듣는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고 그만큼 시간을 다룰 줄 아는 것이다. 그도 점차 같은 시간을 더 소중히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배움의 연장으로 야간수업을 택하게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아닌 직장인들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야간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택한 길을 가더라도 배움의 열정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인생을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야간 수업을 듣느라 친구들과의 여유로운 저녁식사나 기분 좋은 술자리를 자주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한 길에 더욱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음 짓는다.
“수업을 듣고나면 저 스스로도 저의 스승이 된 것 같아요. 비어있던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는 누구보다 든든한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제주대를 빛내는 길잡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이 시간은 내일로 미룰수도 저금을 할 수도 없다. 같은 시간에 어떤 이는 자신이 만족할 만큼 움직이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날려버리기도 한다. 결국 활용은 자신의 몫이다. 내가 생각하고 행하려는 것이 옳다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 길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 하는 것이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길이 된다.

취재를 마치고 제주대를 빛내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빛나는 미래는 돈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신을 밝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만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는 과정을 그들은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밤의 어둠이 편히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밝은 낮시간에는 자신들이 빛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늦은 밤 꿈을 이루는 길을 갈 때 스스로 빛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하늘 아래 자신들이 빛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별이 되어 그 빛을 나누는 희망이 될 것이다.

김보라 기자

» 학생들 사이에 스포츠도박 성행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범법행위’ 문제의식 가져야



재학생 김모(20)씨는 흔히 말하는 스포츠 마니아이다. 그는 고등학생 때 주변 친구들이 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사설도토’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용돈을 모아 배팅도 해왔다. 5000원, 만원의 기본 배팅금액도 시간이 지날수록 5만원 이상으로 점점 올라갔다. 김씨는 “처음 할 때는 적중률이 높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잃게 됐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학생 사이에 사행성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설도토 사이트 전체 가입자 중 20대 대학생이 34%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활동단이 전국 10개 대학교 학생 45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응답자의 41.4%가 사행성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학생은 “사설도토가 불법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보통 금액을 크게 내건 사람들과 운영진들만 처벌을 받게 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법이 아닌 불법 ‘사설도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 파는 ‘스포츠도토’는 유일한 합법적인 사업이다. 사설도토를 부분 인정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스포츠도토 하나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1회 투표금액은 1인당 10만원 이하이며 적중 배당률이 100배가 넘을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달리 사설도토는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중 배당률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인만큼 적발시 처벌을 받는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매체의 접근이 가능해진 만큼 학생들이 쉽게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친구나 선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쉽게 도박에 빠져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들은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서로 경기에 대해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송모(21)씨는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를 통해 사설도토를 알게 됐다. 스마트폰과 통장, 개인정보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스텝문자가 전송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스텝을 통해서도 쉽게 불법도박의 유혹에 노출된다.

◇다양한 배팅 옵션·높은 배팅 금액

대학생 송모씨는 “사설도토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배팅의 옵션과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도토는 상한선이 10만원인 스포츠도토와는 달리 액수의 제한이 100~300만원이다. 또한 단순히 승무패를 맞추는 스포츠도토와는 달리 첫 볼넷, 홈·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기준점 언더·오버 등 배팅의 옵션이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도토보다 매력력을 느끼게 된다. 빠른 환금과 다양한 경기, 높은 배당률 등 편안한 점도 많아 사설도토의 유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불법도박을 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홍보·알선 혐의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이버경찰대의 관계자는 “학생들은 자신이 배팅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설도토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모씨(20)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겠지만 배팅을 하고 스포츠를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느낌이 다르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토토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 굶으려고 노력했지만 스포츠를 볼 때면 생각이 난다 등의 답변을 했다.

장정임(제주대 도박중독연구센터)상담원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에 도박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문가의 상담과 약물치로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2015학년도 전기 외국인 신 · 편입학 및 대학원 특별전형 모집안내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인터넷원서접수	기간	2014. 11. 21.(금) ~ 11. 28.(금) 18:00까지
	내용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www.uwayapply.com)
구비서류 제출	기간	2014. 11. 21.(금) ~ 12. 5.(금) 18:00까지
	내용	인터넷원서접수 후 입학지원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음
면 접 고 사	일자	2014. 12. 17.(수) 10:00 예정
	내용	면접고사 시행 모집단위만 해당(상세일정 추후 통보) *대학원 제외
합 격 자 발 표	일자	2015. 1. 9.(금) 예정
	내용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게시 (http://intl.jejunu.ac.kr)
합 격 자 등 록	기간	2015. 1. 19.(월) ~ 1. 21.(수)
	내용	등록금고지서는 국제교류본부에서 배부예정 (농협중앙회 전국점포 및 회원농협)

지원 자격

- ①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이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단, 대만국적 지원자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대만국적을 소지하면 다른 일방이 한국국적 소지자이더라도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인정함
- ② (신입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제주대학교 한국어과정 4급반 이상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 /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중 TOEFL PBT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점, TEPS 55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또는 기타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한 자

(편입학)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대학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또는 국내대학 졸업자 /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중 TOEFL PBT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점, TEPS 55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또는 기타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한 자

모 집 인 원

각 모집단위별로 수학생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 모집

모 집 요 강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l.jejunu.ac.kr) 확인 또는 국제교류본부(754-8243)으로 문의